

멧돌 잡으려다 집돌까지 잃을라



**이흥재의
세상만사**

주필

'계도 구력도 다 잃었다'는 속담이 있다. 어떤 일을 하려다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것조차 다 잃었다는 뜻이다. 여기서 구력은 '새끼로 그물처럼 따서 만든 그물'이다.

한데 이 속담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먼저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겠다. 어떤 어부가 계를 잡으려 나갔다가 조금만 더 잡으려고 욕심을 부리는 사이 밑물이 밀려온다. 어부는 황급히 도망치다 구력은 물론 이미 잡아 놓은 구력 속의 게마저 다 잃게 된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의견을 피력하는 이가 있으니 조선 후기의 학자 조재삼(趙在三)이다. 그는 '송남잡지(松南雜記)'라는 저서를 통해 '항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준다.

옛날에 게(蟹)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에게 굴억(屈億)이라는 이름의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다. 그런데 굴억은 미혼인데다 용모도 준수하고 학문도 깊어 부녀자들이 흠모하였다. 게의 아내 역시 굴억의 아름다움을 몹시 탐냈다. 이미 남편이 있는 몸으로서 오랫동안 고민하던 게의 아내는 마침내 몰래 약을 먹여 남편을 죽였다. 게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굴억이 묻는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게의 아내가 답한다. "실은 당신 때문에..."

민주당 결국 위성정당 참여

굴억의 두 손을 꼭잡은 그녀는 "당신을 남편으로 삼고 싶었다"며 독살의 배경을 자초지종 이실직고하게 된다. 그 말을 들은 굴억은 칼로 자기 가슴을 찔러 자결을 시도한다. 깜짝 놀라 부르짖는 게의 아내를 보며 굴억이 간신히 말을 잇는다. "일찍이 옛 선현들이 이르기를 '선비만 자기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죽어야 한다' 했거늘 내 어찌 그대의 진정을 알고 믿거니 살 수가 있리오." 말을 마친 굴억은 곧바로 숨을 거두고 만다. 이런 일이 있은 뒤 '계도 굴억도 다 잃었다'라는 속담이 생겨났는데 이

계 뒤에 '계도 구력도 다 잃었다'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조재삼은 "설화가 먼저 생겨나고 나중에 속담이 생겼다"는 주장을 펼친다. 따라서 그는 사람인 굴억을 구력이라 하는 것은 잘못이며 '해망구실(蟹網窮失)' 또한 잘못된 말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속담이 먼저 나오니 나중에 계와 구력을 의인화시킨 설화가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속담 때문에 생겨난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옛날에 장돌뱅이 비단 장수가 어느 집에 들렀다가 잠으로 어여쁜 여인을 보게 되었다. 비단을 사라고 권하는데 여인은 남편이 출다 종이어서 살 수 없다고 한다. 비단 장수는 구경이라도 하러며 비단 보자기를 방에 펼친다. 견물생심이더라고 여인은 부쩍 갖고 싶은 마음이 동하는데, 비단장수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다. 물론 아내도 이자의 음흉한 마음을 눈치 채지 못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까짓것은 딱 감고 한 번만 참으면 그만 아닌가 싶어 몸을 허락하고 만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비단을 주는 대신 제 욕심을 채우고 떠난 비단 장수가 며칠 후 다시 찾아온 것이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번에 안주인이 비단을 외상으로

샀는데 그 대금을 받으러 왔다"는 것이다. 어리둥절한 주인남자가 아내에게 "비단을 외상으로 산 일이 있나?" 묻는데, 아낙은 하는 수 없이 그렇다고 대답할 수밖에. 그러자 남편은 화를 버럭 내며 비단을 다시 돌려주도록 했다. 그리하여 여인은 몸도 내주고 비단까지 잃어 '계도 구력도 다 잃었다'는 이야기다. (이상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비슷한 뜻으로 '달아나는 노루 보고 얻은 토끼 놓았다'는 속담도 있다. 정치판에서는 흔히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까지 놓쳤다'라는 말을 쓴다. 적진의 표를 탐내다 자기 뒷발의 표까지 잃었을 경우다. 한 때는 대선 후보까지 오르며 인기를 누렸던 안철수도 그런 정치인 중 한 명일 것이다. 의견을 확대하고자 우파 일부 세력과 합쳤으나 결국 압도적 지지층이었던 호남 중도 좌파 세력마저 등을 돌리고 말았으니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연합정당 참여도 그런 우려를 자아낸다. 비례대표 몇 석 더 얻으려다 지역구 의석까지 잃게 되면 '멧돌(멧돼지) 잡으려다 집돌(집돼지)까지 잃는' 격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민주당으로서 이렇게 함으로써 미래통합당의 원내 1당 확보 시도를 저지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을 것이다. 만약 원내1당을 뺏기게 되면, 최악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 탄핵까지 당할 수 있잖는가. 민주당으로서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그래서 명분은 잠시 골방에 치워 놓고 실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비록 '꿈수에 또 다른 꿈수로 맞선다'는 비난을 듣더라도,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이라고 했는데 이 또한 같은 맥락이다.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이라는 반칙과 탈법으로 의석을 도둑질하는 만행을 저지르는데 이를 가만히 두고 보는 건 정경의가 아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런 주장한 것도 마찬가지다.

'비난은 잠시' 꿈수에 꿈수?

어찌 됐든 민주당이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와 함께 구성한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어제 공식 출범했다. 여기에는 민주당 외에 '가자환경당' 등 이름조차 생소한 5개 정당이 참여했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을 비난하며 자신들은 그런 정당을 절대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한 지 한 달도 못 돼 입장을 완전히 바꾸었다.

"상대가 중앙선을 침범하면 방어운전을 해야지 1차선만 지키면 어떡하나." 그렇게 현란한 변명의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김대중 선생은 일찍이 "정치인은 '사상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명분과 실리를 함께 강조한 말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민주당의 비례정당 참여를 '상인의 현실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민주당이 진정 선거법 취지를 살리는 대의를 실현하려면 비례대표 공천 자체를 포기하는 결단까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공허한 이야기일 뿐이다. 민주당이 죽어도 선택하지 못할 카드이기 때문이다.

선거는 결국 표를 다투는 냉정한 현실 정치 행위다. 그런 면에서 이제 민주당의 비례 연합정당 참여는 되돌릴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됐다. 어찌 출범한 '더불어시민당'이 민주당에 과연 몇 석을 더 얻어 줄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계도 구력도 다 잃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는 민주당이 예뻐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보수 언론이 그토록 애먼글면 살리고 싶어 하는 미래통합당에는 사실 기대할 게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위기가구'에 2000억원 긴급 투입

'코로나19'로 소득 끊긴 가구 대상 2인 생계비 77만원 최대 6개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정 형편이 급격히 기울어진 '위기가구'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2000억원을 투입한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이러한 긴급복지지원 예산 2000억원이 담겼다. 위기가구란 감염병이나 사건·사고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갑자기 끊기며 전기·가스·수도요금 납부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정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이런 위기가구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 중이다. 올해 기준 지원금은 1인가구 45만4900원, 2인가구 77만4700원, 3인가구 100만2400원, 4인가구 123만원, 5인가구 145만7500원 등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의 소득이 갑자기 끊길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추경으로 예산을 보강한 것이다. 애초 정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정부는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신청자에게 48시간 내 지급을 결정할 뒤 금융재산 500만원, 일반재산 1억8800만원(대도시 기준) 이하 등의 요건을 사후 검증하는데, 보건복지부를 중심

으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35만7000건의 지원이 새롭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은 추경을 통해 소비쿠폰을 지급하지만 갑작스럽게 소득이 끊긴 위기가구에는 관련 지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 5월 30일로 연기

전국 사찰 한달간 기도...원행스님 "치유·극복에 매진할 때"

오는 4월 말로 예정된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가 한 달 뒤로 연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불교태고종 등 30개 불교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월 30

일로 예정했던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을 5월 3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또 "4월 25일 예정했던 '연등회'도 5월 23일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4월 30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전국 사찰 1만5000여곳에서는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한 달 기도가 시작된다. 모든 불교도가 기도를 통해 국난 극복을 위한 마음을 모은다.

이어 5월 3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와 전국 사찰에서 열리는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서는 한 달 기도로 닦은 공덕을 다른 중생들에게 돌리는 회향(回向)에 나선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지금의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해 그 아픔을 국민과 함께하고, 치유와 극복에 매진하고자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 일정을 5월로 변경해 치를 것을 고심 끝에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 송정역 주변 59만여㎡, KTX 투자 선도지구 지정 추진

국토부 공모...올해안 승인 목표

광주시가 송정역 주변 지역을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4월 1일까지 광주송정역 KTX 지역 경제 거점형 투자 선도지구 지정안을 주민 공람한다. 투자 선도지구 지정 승인에 앞서 주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에 신청해 추

진하는 것으로, 송정역 주변의 체계적인 도시 개발,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LH의 제안서를 받아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하고 올해 안에 지정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투자 선도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 행정기관이나 시·도 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건

폐쇄와 움직임을 제한을 완화하고 그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는 광산구 송정동, 장록동, 송촌동 일원 59만5700여㎡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획 인구는 4901호, 1만1530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지난 20년간 14,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와 재테크 강의

전임강사: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 전공)

전남대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평생교육공로: "교육부장관상" 수상
MBC-TV방송국 경제특강
공무원연수원 등 500회 이상 초청특강

특 전
자격취득 희망시 국가공인 비영리경영관리사, 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 분석사 자격취득으로 책임지도하며 수료 후 모임체 결성하여 지도함

강의기간: 2020년 3월~6월(15주)
정원: 선착순 50명 마감

조선대 평생교육원
- 부동산컨설팅과 재테크 매주(수) 19시~21시
- 접수처: 062)230-7700~2

광주교육대 평생교육원(무료주차)
- 부동산 실전경매 매주(목) 19시~21시
- 접수처: 062)520-4243

부동산강의 및 부동산경매 관련 상담
010-5613-1808 정영수 박사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 공장용지 14,916.9㎡, 건물 998㎡(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 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 건물 일부 임대 중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약 700㎡)
- 매월 4백만원 이상 수입(임대료 및 태양광 수익) 태양광은 대출 없고 순수익 임

※ 매매가 25.5억 ※

인 하 건 설(주)
010-3605-0214
062)655-4840

돈되는 부동산(NPL)과 실전경매

14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공개 강의 일시 ●
조선대 : 3월 19일(목) 주간 10시, 야간 7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도 고수익 보.

2020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20년 2월 1일~ 2020년 3월 19일
- 교육기간: 2020년 3월 19일~2020년 6월 11일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7:00~9:00
- 수 강 료: 22만원(3개월)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상담지도교수: 경영학박사 송송옥
H. 010-9416-1200, T. 062)230-7700-2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